"양동시장 옥상 주차장 지어달라"

상인들, 중기청에 42억원 지원 요청

중기청 "타 시·도 형평성 고려" 난색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내 옥상형 주차장 건립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중소기업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동시장 상인회원 등 408명은 최근 '양동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사설시장 내의 주차장 설치 지원을 제한한 유권해석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서구청이 '양동시장 2층 및 옥상에 철골구조물을 세워 1만4천326㎡(주차 39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남대학교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사업비 69억원 중 국비 42억원의 지원을 중기청에 요청했으나 '지원 불가능'이라는 회신을 한데 따른 것이다.

상인회는 이 건의서에서 ▲시장 내 점포(1곳당=10㎡)는 시가 2억~3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부지 매입시 과도한 보상 요구가 예상되고 ▲시장 외곽에 주차장 설치시 이용 기피 등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상형 철골 주차장 설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차장 건축물을 서구청 소유재산으로 등재,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재산권 분쟁 소지를 없애고 필요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점포에 한정시켜 공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동시장 김영호 상인회장은 "재래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값싸고 질이 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이 편리한 주차장이 필수"라며 "양동시장은 땅값이 비싸고 인근에 주차장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는 만큼 '옥상형 주차장'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래시장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들어 주차장 건립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상가 건물형 사설시장의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 설치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도 양동시장 주차장 건립 예산만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양동복개상가 가구거리 앞 도로를 막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 행렬.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상형 철골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 경제 타당성 논의

'영산강포럼' 창립대회

영산강에 배를 띄우는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하게 될 '영산강포럼'(위원장 김성진) 창립대회가 3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영산강포럼'은 국내 뱃길 조성 분야 전문가인 서남대 이병담·한양대 추구길 교수 등 학계와 지역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창립대회에서는 추구길 교수가 '뱃길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 독일인으로서 귀화해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참(Bernhard Quandt·이한우)씨가 '독일의 뱃길 복원'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산강포럼' 김성진 위원장은 "호남 역사의 동맥인 영산강은 광주·전남지역의 생명수"라면서 "뱃길을 살려 환경과 경제적 효과를 함께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은 지난 1981년 하구둑을 막아 2억5천만t의 물을 가두는 공사를 완공했는데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해 최근 "옛 뱃길을 복원해 환경을 살리고, 광주·목포 등 화물 수송 물류 비용도 줄이자"는 뱃길 복원 논의가 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등교사 임용시험 2일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열린 '2008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예비 교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올해 임용시험에는 27개 과목 212명 모집에 모두 3천305명이 지원, 15.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1월15~17일 2차 시험을 거쳐 1월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은행·도토리 따가지 마세요"

무등산 등 광주 인근 야산의 도토리, 도심의 은행나무 열매가 수난을 겪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이들 열매를 따내는 바람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은행 털이' 두달간 95건 적발

무등산 야생동물 먹이 없어 민가로

◇도심에선 은행 알 쟁탈전=지난 10월 조모(62·광주시 남구)씨 등 2명은 광주시 서구 양동 도로변 가로수에서 은행 열매를 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 등은 사다리와 손수레를 동원해 수십 그루의 나무에서 20㎏ 이상의 은행 열매를 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에는 지난 10월부터 95건의 신고가 접수돼 93명이 훈방 및 계도 조치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은행 도둑'들은 적발된 사례보다 훨씬 많다는 게 각 구청 측의 설명. 대부분 이른 아침이나 밤에 은행 열매를 따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을 따다 적발되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 훼손금을 내야한다. 높이 5m·지름 15㎝의 은행나무 가지를 절단하거나 부러뜨리면 은행나무 시중가격(37만원)의 20%인 7만4천원과 작업비 7만6천원 등 15만원을, 나무를 절반 이상 훼손했을 땐 나무값 전액인 37만원 등 작업비 포함 44만6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판매를 목적으로 은행을 대량으로 훔쳐가면 절도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무등산 도토리 수난=무등산의 경우 일부 등반객들이 도토리와 산 밤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 야생 동물이 겨울철에 필요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안양계곡에서 도토리를 줍던 이모(62)씨 등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6명을 적발, 계도(啓導)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 야생 열매를 채취하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한국 최고의 개' 선발한다

제1회 광주 인터내셔널 도그쇼

7~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회 광주 인터내셔널 도그쇼 & 애완용품전시회'가 오는 7~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KKC)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천여 마리의 순수종 애견들이 참가하며 미국·캐나다·일본의 전문심사원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를 선발한다.

도그쇼는 종류와 나이를 구분해 견종 표준에 부합되는 우수 애견을 선발하는 심사가 진행되는데 나이별로 베이비조·퍼피조·주니어조·어덜트조로 나뉜다. 각 조는 4단계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심사를 받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각 조 챔피언(Best in Show)을 선발한다.

또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각종 탤런트 견들의 다양한 묘기시범과 디스크 받기·사람과 개가 함께 춤추는 도그 댄스·경찰견 훈련시범이 펼쳐진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애견 달리기·애견 상식퀴즈·귀여운 애견들과 사진 촬영하기 등이 마련된다. 애견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애견학과에 관심이 있는 고교 3학년생들은 대학부스에서 입학상담을 할 수 있으며, 생산업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애완용품을 시중보다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행사에는 애견을 동반해 입장할 수 있다. 문의는 (사)한국애견협회 02-2265-3349. 홈페이지 : www.kkc.or.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형저수조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대형저수조와 옥내급수관 내 수질검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검사 대상시설은 대형 저수조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과 3천㎡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 1천640곳이다.

옥내 급수관의 경우 연면적 6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5천㎡ 이상인 국·공립 시설 등 165곳이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건물 소유자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한다.

시료채취와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 등에서 직접 방문해 하며, 검사 수수료는 대형 저수조는 5만1천800원,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7만6천700원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3일)	
박홍기	228-0022
●법무사회 법률상담(3일)	
박환원	370-0600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